21대 첫 정기국회 개막… 제주 현안 산적

오늘부터 100일간 회기… 법안·내년 예산안 등 심의
희생자 배보상기준 명료해진 4·3특별법 다시 테이블에
자치경찰 존치 특례도 과제… 국비 확보 총력전 요구

100일간의 대장정을 펼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제주 현안의 국회 처리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4·3유족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100일 동안 펼쳐지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안 심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국회는 만반의 방역 대책을 갖추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 제주 최대 관심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해 결국 폐기되고 말았고, 21대 국회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공동발의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며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장관급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신 송재호 의원 등 3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법안에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중진인 이명수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대 국회와 달리 여야의 활발한 논의도 기대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며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확대도 요청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가운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특례 반영을 위한 제주도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도 요구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회 대면 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의 예산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1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 제주4·3 관련 사업비를 비롯해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구축사업,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 보전사업,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제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낙점

쇄신 명분 6개월 만에 변경
전국위원회 거쳐 내일 확정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됐다.

통합당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수 야당이 당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지 6개월여 만이다. 총선 참패 후 쇄신과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명 변경 실무를 주도해온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국민의힘을 별도 약칭 없이 있는 그대로 부르기로 했고, 영문 명칭을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 본부장은 새 당명이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름에 걸맞은 새롭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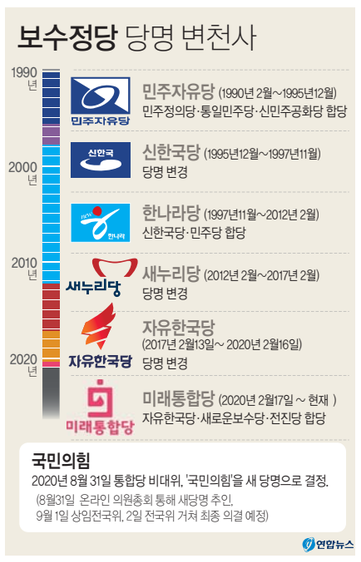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21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했으며, 총 1만694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번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 등을 고려, 한국의당, 위하다 등 최종 후보에 오른 다른 당명 대신 국민의힘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다음 달 1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당명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또 새 당명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당명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새 당명과 별도로 당 색과 상징도 추가로 준비해 다음 달 둘째 주께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은경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 짧고 굵게 마쳐야 피해 최소화"

의료계에 "정부와 대화해달라"

방역당국이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지금의 강력한 조치가 유행을 억제하도록 반전을 이끌어 내려면 국민이 모두 함께 철저하게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여전히 확진자가 200명대로 매일 발생하고 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오늘은 위중·중증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행해 전파 연결고리를 끊느냐가 향후 코로나19 유행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강화된 2단계(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빨라야 이번 주말, 다음주 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경각심을 놓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자 일각에선 수도권 교회 교인·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정 본부장은 수도권 교회에 대한 전수 검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와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계에서도 이런 엄중한 유행상황을 이해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민주당기 전달받은 이낙연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전달식에서 김영주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으로부터 당기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비서관 개편… 정무 배재정·국정홍보 윤재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배 신임 정무비서관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부산대를 졸업했다.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광주 숭일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변인실 부대변인을 거쳤다.

김 신임 청년비서관은 순천고와 순천대 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박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경북 영주고와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했고,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을 거쳤다.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용산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위촉공고

여성가족부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에 속한 청소년단체로서 전도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위원을 위촉합니다.

모집부문
1.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2. 43개 읍·면·동 지역 마을회장(남·녀)

모집기간
2020년 9월 1일 ~ 10월 30일까지

제출서류
※ 신변상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함
이력서(연락처 기재)
증명사진 2장(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신분증 부착)

제 출 처
우편번호 63225 제주시 연삼로 470번지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연락처 : ☎ 746-1318

2020 문화재지킴이 3차 역량강화교육 안내

□ 일 시
2020. 9. 13(일) 09:00~13:00

□ 장 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시 50분까지 2층 다목적실로 모여주세요.)

□ 내 용
문화재지킴이 역량강화교육 및 지킴이 봉사활동

□ 대 상
청소년 · 일반인 · 가족

▶ 주 최 : 문화재청
▶ 주 관 : 사단법인 문화지기(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

▶ 참가신청 : (봉사활동 4시간 부여)
- 청소년자원봉사센터(http://dovol.youth.go.kr) 로그인 후 신청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020 문화재지킴이 활동 예정
- 문화재지킴이 역량강화교육
- 세계자연유산지킴이활동
- 고촌순례
- 전국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 전통문화체험교실
-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월 1회)

사단법인 문화지기
(제주문화재지킴이)
어제를 닮아 내일에 전합니다.

마을 문화재를 찾습니다

서낭당 본당 본향제단

특 징
· 고인돌처럼 웅장한 평석
· 가로 세로 약 3m
· 중앙으로 38선처럼 선명한 금이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신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4070-829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임)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